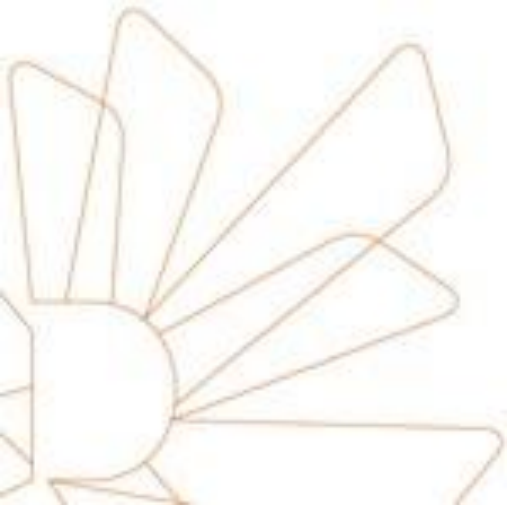


해외학술탐방 결과 보고서

팀 SI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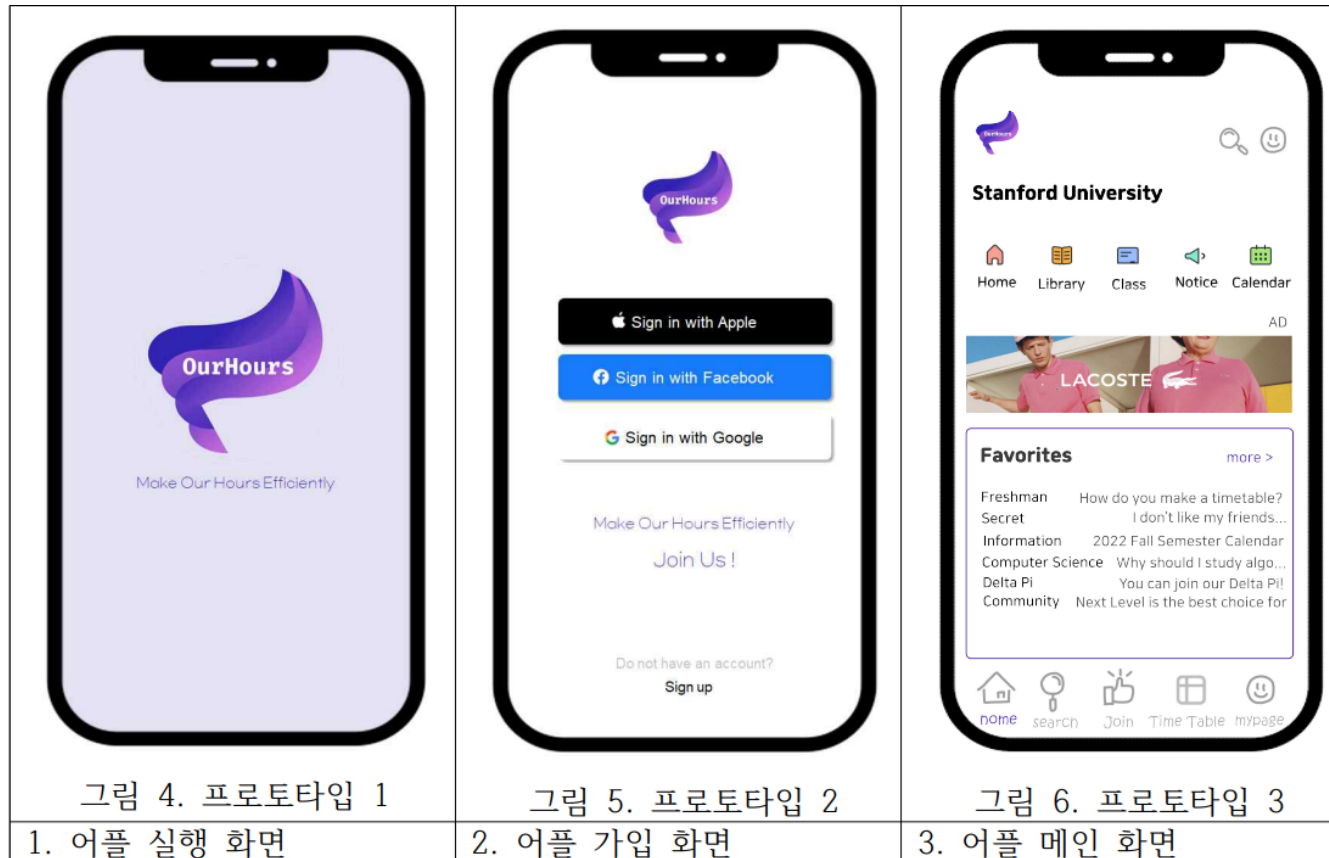
Contents

- 1 항공권 사본
- 2 예산 사용내역
- 3 일정 계획
- 4 탐방기관 방문 사진 및 인터뷰 결과
- 5 탐방 후 느낀점
- 6 탐방을 통한 나의 발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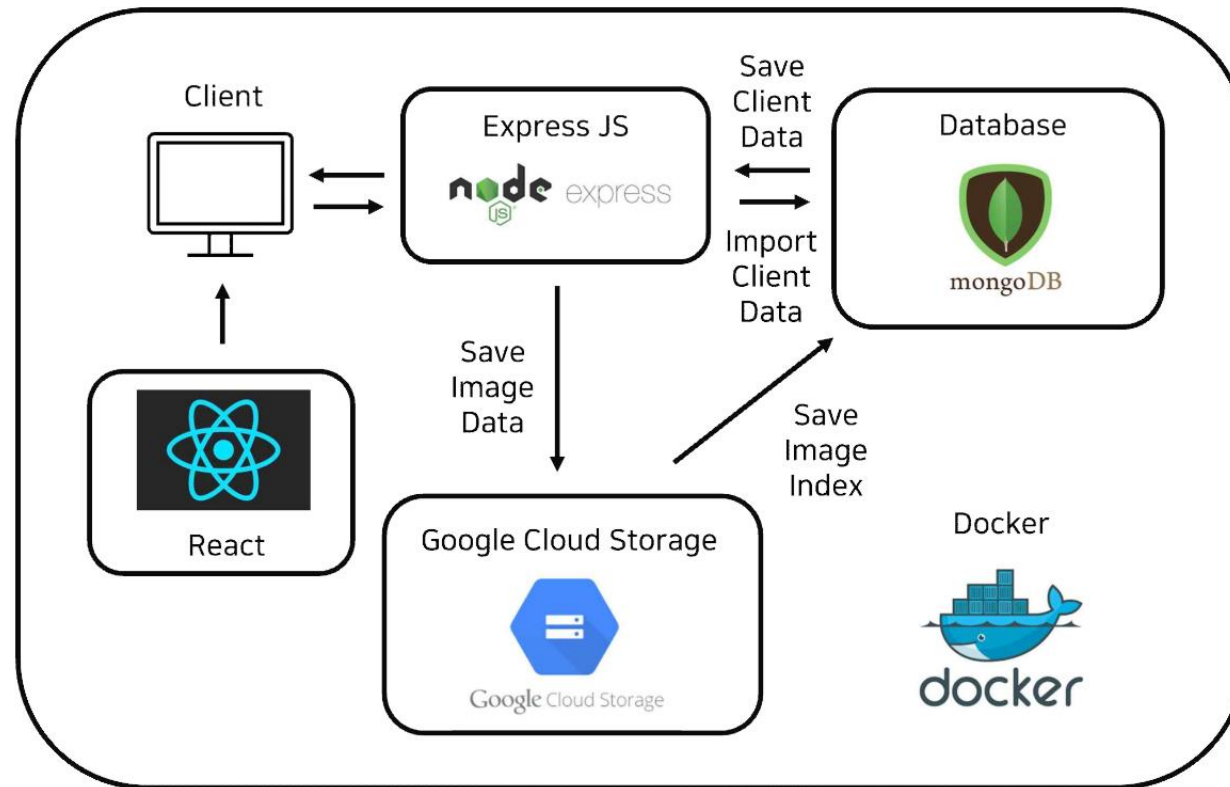
일자	국가	도시	숙소명	주요일정
06.16.	US	San Francisco	BEI San Francisco, Trademark Collection by Wyndham	입국 및 휴식
06.17.	US	San Francisco	BEI San Francisco, Trademark Collection by Wyndham	Wework 투어를 통한 프로토타입 피드백 요청
06.18.	US	San Francisco	BEI San Francisco, Trademark Collection by Wyndham	실리콘밸리 투어를 통한 일하는 방식과 문화 체험
06.19.	US	San Francisco	BEI San Francisco, Trademark Collection by Wyndham	UC Berkeley 방문을 통한 어플 설문조사
06.20.	US	San Diego	Kings inn San Diego	Stanford 대학 방문을 통한 어플 설문조사
06.21.	US	San Diego	Kings inn San Diego	샌디에고 자유여행
06.21.	US	San Diego	Kings inn San Diego	코로나도 자유여행
06.22.	US	San Diego	Kings inn San Diego	샌디에고 자유여행
06.23.	US	San Diego	Kings inn San Diego	UCSD 방문을 통한 어플 설문조사

06.24.	US	Los Angeles	Hotel Indigo Los Angeles Downtown	LA 이동 및 휴식
06.25.	US	Los Angeles	Hotel Indigo Los Angeles Downtown	UCLA 방문을 통한 어플 설문조사
06.26.	US	Los Angeles	Hotel Indigo Los Angeles Downtown	할리우드 자유여행
06.27.	US	Los Angeles	Hotel Indigo Los Angeles Downtown	할리우드 자유여행
06.28.	US	Los Angeles	Residence Inn by Marriott Manhattan Beach	SLAU 방문을 통한 어플 설문조사
06.29.	US	Los Angeles	Residence Inn by Marriott Manhattan Beach	산타모니카 자유여행
06.30.	US	Los Angeles	Residence Inn by Marriott Manhattan Beach	LMU 방문을 통한 어플 설문조사
07.01.	US	Los Angeles	Residence Inn by Marriott Manhattan Beach	자유여행 및 귀국준비
07.02.	US	Los Angeles	Residence Inn by Marriott Manhattan Beach	자유여행 및 귀국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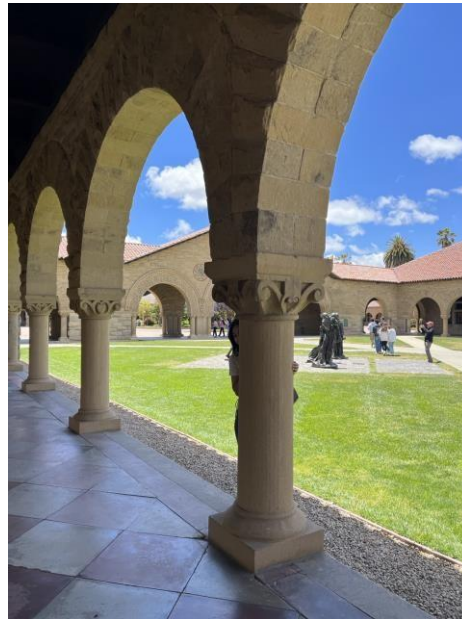
Stanford에서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QR코드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단답형 및 주관식(필수 아님)으로 결과를 수집하였고, Google 및 Apple은 직접 인터뷰를 해서 결과를 수집하였다. 먼저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여주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Apple 및 Google에서는 개발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시스템 구성도도 보여주었다.



4 탐방기관방문사진 - Stanford Univ.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의 사용자가 될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스탠포드 대학교에 방문하였다. 미리 준비한 구글폼의 URL을 큐알코드로 스캔하여 지나가는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학기간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초기에 원했던 100명 이상의 학생에게 물어보는 것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투어를 온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설문조사는 총 62명에게 받았고, 설문 정리하자면, 사전 조사한 대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별로 묶어진 커뮤니티 활동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10대가 총 45명 20대가 총 17명이었다. 아마 학교 투어를 온 친구들에게 물어본 것이어서 18,19 정도의 나이가 많았던 것 같다. 20대는 Stanford 재학생이 주로 답한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 1: 해당 application이 미국 내의 사용자들을 attract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58명), 보통이다(4명)

질문 2: 해당 applicatio의 UI가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해 보이는지?

그렇다(55명), 보통이다(7명)

질문 3: 현재 설명했던 app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app이나 website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다(25명), 아니다(37명)

질문 4: 만약 해당 application이 출시된다면 사용할 마음이 있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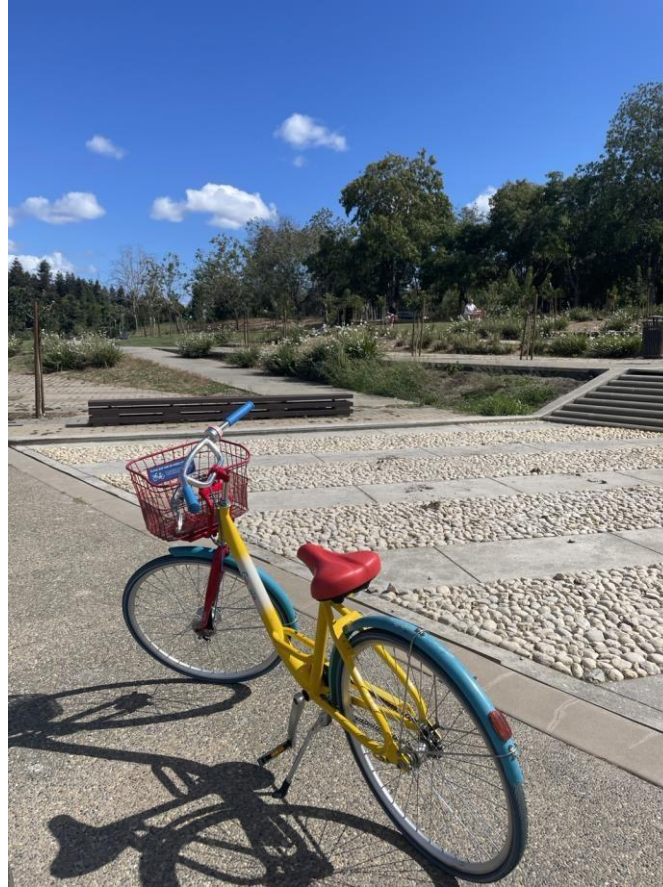
그렇다(60명), 잘 모르겠다(2명)

질문 5: 해당 app이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한다면?

해당 내용은 주관식으로 적어줬는데, 필수 질문이 아니어서 건너뛴 사람도 52명정도 되었고, 답변을 한 사람은 10명정도였다.

현재 나온 app의 구성을 보면 광고같은게 많이 떠있는데, 수익을 위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초기 사용자입장에서는 산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근데 application이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기는 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당 학교를 인증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합격증이나 이런걸 보내면 security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부분 security문제와 글씨크기나 배치에 관련된 답변이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다.

4 탐방기관방문사진 - Goo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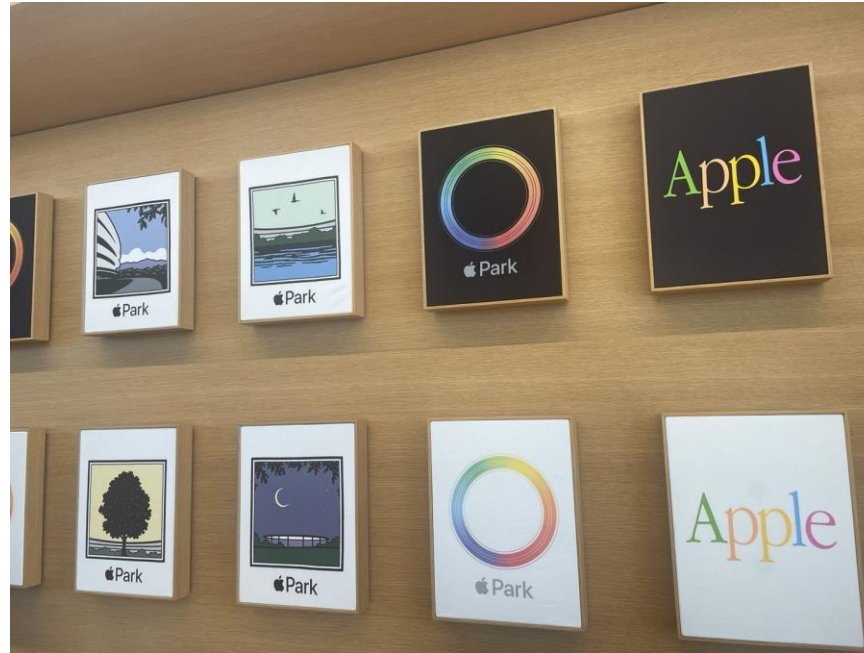
[전체적인 인터뷰 내용 및 사내문화 체험 결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벨리에 위치한 구글 본사에 방문하였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는 판교의 테크노 벨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하나의 회사의 캠퍼스가 굉장히 컸고, 구글 내에서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둔 구글 로고 모양의 자전거가 인상깊었다. 또한 자유롭고 탁 트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개발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듯한 회사 내 분위기에, 앞으로의 팀 운영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 구글은 현재 재택근무로 전환을 하고 있고, 외부인의 내부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서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출근한 몇몇 직원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친절하게 잘 알려주었고 실리콘벨리에서 근무하시는 현직자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지나가는 구글 직원 및 경비직원 총 4명에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질문 및 답변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질문 : 해당 application이 미국 내의 사용자들을 attract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정리(4명) : 해당 application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는 명확히 이해가 되었다. 여기에는 Reddit이라는 것을 쓰는 데 내가 많이 보는 것들 위주로 보여지는 것도 있고,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 관련된 글들을 많이 볼 수 가 있는데, 이걸 학교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focus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 app을 사용하게 만들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 하나의 학교에 targeting을 해서 그 app이 해당 학교내에서 유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학교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할 수 있을 지 등에 대한 고민만 하면 충분히 attract 가능할 것 같다.



[전체적인 인터뷰 내용 및 사내문화 체험 결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벨리에 위치한 구글 본사에 방문하였다. 애플 또한 구글과 같이 특이한 모양의 캠퍼스를 갖고 있었다. 링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굿즈화 하려 방문객들에게 회사를 소개하는 것이 인상깊었다. 애플 본사내에는 출입이 불가하지만, 밖에 애플 사내 카페에는 출입이 가능했다. 애플지원들은 바지주머니에 사원증을 보이게 꽂아두기 때문에 직원인지 아닌지가 식별이 가능하여 애플직원이 누구인지 잘 알아볼 수 있었고, 시간적여유가 있으신 분들 총 5명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질문 : 해당 application이 미국 내의 사용자들을 attract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정리(4명) : 물론 attract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application은 없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application일 수 있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targeting을 잘 해야 한다. 하지만 이 application은 대학생을 target으로 하고 있고, 명확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해당 application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marketing을 잘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할 것 같다. App 자체가 너무 좋더라도, 만약 사용자들이 아무도 모른다면 누가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생각해야할 부분이고, 또 투자자도 찾아야 할 부분이다. 매우 impressive했고, 응원한다고 다들 말해주었다. 다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해당 application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었지만 다 어떤 식으로 이 application을 사용하게 만들건지를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단계인것 같다.

이번 해외 학술 탐방은 나의 대학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잡을 만큼 좋은 순간이었다. 우선 20대를 맞이하고 약 2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해외로 나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 딱 좋은 시기에 학교에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준 것 같았다. 다녀와서 돌아켜 보니 가장 좋은 시기에 적절하게 잘 다녀왔던 것 같다. 미국은 이번 기회로 처음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와는 정말 다른 미국 문화를 잘 느끼고 올 수 있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이것에 정말 많은 감탄과 배울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해외 여행을 더 자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학술 탐방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나의 꿈과 전공을 연결시켜서 여러 곳을 방문하는 것도 정말 뜻깊은 시간들이었다. 추후에 내 주위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있다면 이 장학 제도를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해외학술탐방을 신청할때만 하더라도 본 팀이 기획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프로젝트가 창업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들었고,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와 물어볼 기회가 많이 없었다. 하지만 직접 실리콘밸리에 가서 구글, 애플, 테슬라 등을 돌아보면서 해당 기업의 문화는 어떻고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음으로써 먼저 타겟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과 UI를 초기 PoC 에서는 간단하게 해서 출시해 볼 것 등과 같은 것, 서버관리에 대한 고민과 자금 확보와 관련된 여러 현실적인 조언들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위워크에서도 여러 스타트업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는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많았고 설문조사 받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벽을 깰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간에 씨월드나 주변 구경도 하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스스로에게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혹시 4학년이라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아직 학년이 낮아서 해외학술 탐방을 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 그만큼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의미있었던 활동중에 하나였고, 스스로에게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실리콘밸리와 위워크 등 현직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곳을 방문해본 경험은 정말 새로웠다. 한국에서도 쉽게 경험해볼 수 없는 일을 좋은 기회를 통해 직접 느껴볼 수 있어 좋았다. 직접 컨택해보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학술탐방을 끝낸 이후에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지금처럼 내 주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직자들에게 얻은 조언과 학술적인 사항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만나본 많은 사람들에게서 얻은 조언과 그들에게서 느낀 점들을 토대로 창업팀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더 발전해 나가고 싶다.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흔쾌히 수락 해주시는 직원 분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타국의 창업팀인 우리의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대학생 분들, 우왕좌왕할 때도 있던 우리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분들 등 미국에서 많은 따뜻함을 느끼고 온 것 같다. 살면서 다시 있을지 모르는 이런 학술탐방을 경험해볼 수 있음에 감사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투어하면서, 능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직 한국에는 보편화되지 않은 문화지만, 엔지니어가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고 몇 시간을 회사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주어진 일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가 엔지니어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의 대부분의 IT 회사는 엔지니어의 편의만을 생각해 회사 문화를 구축해 나갔다. 본 팀 또한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을 참고하여 최고의 효율을 위한 근무 방식을 설계해 나갈 수 있었다. 또 여러 학교를 방문하며 실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합격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이번 학술 탐방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아 겪는 어려움조차도 경험이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컴퓨터공학 전공자로서 우상이 되는 회사들을 직접 가보며 분위기를 느껴보고 엔지니어로 성장하기 위한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

해외학술탐방을 통해 외국 IT 기업들의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사실 기업 방문보다는, 다른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미국의 IT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바로 교통이나 식생활에서 IT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였다. 이러한 그 나라의 다른 문화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 방면에서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추후에 내가 다른 창업 아이템을 생각해 내거나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일이 있을 때, 좋은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업의 자유로운 문화에 감탄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국계 다른 기업들의 문화를 많이 가져오고 적용시키고 있는데, 애플이나 구글 본사를 거닐면 서 회사 임직원들이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나 또한 이러한 작업 그리고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들며 앞으로의 개발에 정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앞으로 남은 막학기는 부족한 개발 공부를 더 하며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려고 한다. 해외학술탐방을 통해 경험한 것이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먼 미래에 구글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도 생겨난 것 같다.

초기계획이 프로토타입을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었는데 대학교를 돌아다니고, 현업 개발자들에게도 우연히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김으로써 여러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홍보나 투자, 그리고 빠르게 간단하더라도 프로토타입을 출시해보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여름방학에 출시계획에 대한 구체화와 어느 정도까지 구현시켜 낼 것인지,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하여 늦어도 2 학기 말까지는 결과물을 완성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자금을 위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대회 또는 교내 창업 동아리 같은 것을 이용해 볼 생각이 있고 이외에도 여러 지원에 대해 더 논의를 팀원들과 할 계획이다.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한국과는 다르고, 결과물 중심적이면서 약간 개인적이라는 느낌도 받았다. 그리고 현재는 재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회사에 많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IT 기술들이 흘러가고 어떤 분야가 더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성장해보고 싶다는 계획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먼저 갈지, 커리어를 쌓다가 공부를 더 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다.

우리의 본 목적은 창업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얻는 것이었다. 대상으로 한 나라에서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만큼, 한국인의 입장으로 바라본 시각과는 조금은 다름을 알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존에 기획했던 어플을 수정·보완하여 실제 출시 이후에 한국의 에브리타임처럼 미국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는 어플을 제작하고자 한다.

또 한국의 문화와 직접 경험하고 들어본 미국 회사들의 문화를 토대로 합치고 수정하고 보완해 우리만의 근무 문화를 만들 고자 한다. 이것이 정착된다면 이것이 우리만의 정체성이 될 것이며 어떤 회사보다 효율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짐작한다.

탐방을 통해 여러가지 기업들을 접해보고, 많은 스타트업들과 소통해보았지만, 아직 웹사이트 구축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지식을 보충하여 본 팀이 구상하고 있는 창업아이디어를 구현하여 출시할 예정이다. 또 실리콘밸리에서 눈으로 보고 느꼈던 기업들을 참고하여 본 팀에 적합한 업무방식을 찾아 채택할 예정이다.